내 점수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갈 수 있을까?

'복잡한 入試' 컨설팅 받아보자

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성적이 9등급으로만 처음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내신 실질반영률과 등급 간 점수차,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 입시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고민에 빠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채점 서비스에서 모의지원, 합격예측 등을 해주는 다양한 컨설팅을 소개한다.

온라인 컨설팅은 채점 서비스와 내신 산출, 예상등급 커트라인, 모의 지원 등은 무료다. 합격예측과 온라인 배치표, 분석 리포트 등은 유료다.

컨설팅의 가장 큰 장점은 모의지원을 통해 결과를 즉시 알 아 볼수 있다는 것. 가격은 2만~5만원대. 단점은 컨설팅 결과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결과가 다양하지 못할 수가 있다. 컨설팅 전문가와 직접 상담은 비용이 30만~60만원으로 비싸다. 1대1 전문가 컨설팅에서는 자신의 성적을 토대로 지원 또는 합격 가능 대학, 장래 희망과 향후 전망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대입 컨설팅 기관 및 특징

업체	특징	비용
김영일교육컨설팅 (www.01consulting.co.kr)	국내최초 입시전문 컨설팅 노하우 풍부	온라인 7만7000원, 1대 1 상담은 30만 원
대성 마이맥스터디 (mimacstudy.daum.net)	대성학원의 DB 활용, 내신 관련 분석 서비스 강점	2만~4만 원
메가스터디 (www.megastudy.net)	10만 명 이상의 가채점 서비스 확보와 수험생 성향 분석한 합격 예측	합격예측패키지 2만 원
비타에듀 (www.vitaedu.com)	고려학력평가연구소와 모의수능까지 자료 포함해 합격 예측	실채점 서비스 2만 원
스카이에듀 (www.skyedu.com)	수능 등급 대학별 환산 점수 제공	논술첨삭 1만 5000원
이투스 (www.etoos.com)	네이트온의 메신저 통해 화상 컨설팅 가능	화상 상담 10~30분 (2만~5만 원)
유웨이닷컴 (www.uway.com)	국내 최대 모의고사 기관인 유웨이중앙교육 DB활용	온라인 4만5000~5만5000원, 1대 1 상담 38만5000원
진학사 (www.jinhak.com)	4년간 최다 모의지원자 수, 중상위층 분석	모의지원 3만 원, 리포트 추가 시 4만 원

채점·모의 지원·합격 예측까지 서비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주)김영일교육컨설팅 등 여러 곳이 있다.

각 기관마다 특색이 있어 컨설팅을 받을 곳을 고를때는 ▲자신의 수능 예상 원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수리 '가'의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등급제 특성상 동점자가 많아 원점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컨설팅 업체가 대학별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가채점과 실채점 서비스가 함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채점으로 지원 가능 대학 4~5곳을 선정, 대학별고사 준비 전략으로 활용하고, 실채점 서비스로 실제 목표 대학을 압축, 정시 지원때 활용하면 된다.

대성 마이맥스터디는 대성학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온라인 배치표가 강점. 수능 자동채점과 내신 산출, 모의지원 서비스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메가스터디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채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비타에듀는 채점 서비스와 함께 자신의 내신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도 예측 가능하다. 스카이에듀는 수능 등급을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제공하고, 이투스는 네이트 온의 메신저를 통해 화상 컨설팅이 가능하다.

유웨이닷컴은 '수능채점', '영역별 실시간 등급 컷'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채점 서비스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한 뒤 모의 지원을 통해 희망대학에 대한 합격 가능성과 현 자신의 성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인자 홍보팀장은 "등급제가 새로 시행되는 데다 대학별 입시 요강이 워낙 다양해 올해는 특히 컨설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믿을 수 있는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골라 그들의 기초자료와 평가 노하우를 토대로 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방과후 학교' 농촌교육 희망

전남도교육청, 9개 시·군서 운영 큰 성과

지난 2일 영광여자중학교 체육관.

통기타와 하모니카 플루트 등이 어우러진 기악 합주가 가을의 청명한 공기에 어울려 아름답게 울려퍼졌다.

아름다운 음악 연주 주인공은 전교생이 40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학교인 영광 월송초등학교의 통기타 합주반 '월송 어커스틱'. 이들은 통기타를 중심으로 하모니카, 멜로디언, 플루트, 탬버린, 피아노, 베이스기타 등 일곱 가지 악기들을 통해 기악 합주를 멋지게 연주했다.

방과후 학교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광월송초등학교 '월송어코스틱' 팀의 연주모습과 전남도내 각 지역 초등학교에 파급 시킬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나주 봉황초등학교 '원어민 생활영어', '신나는 주산교실'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받고 있다. 〈위에서부터〉 /도교육청 제공

교육부서 50억 지원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월송초등학교 통기타 부는 4~6학년 학생 16명으로 구성돼 방과후 학교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영광예술제에 참가해 캐논 C장조를 멋지게 연주해 많은 사람의 뜨거운 갈채도 받았다.

기타라는 악기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통해 기타를 접해 보고 직접 연주까지 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마음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지난 2005년 2개 시군, 올 9개 시·군(강진,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신안, 영광, 장성, 함평)이 선정돼 약 50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방과후 학교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2006년부터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 개발 지원사업 운영대상 기관으로 확정된 구례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동화, 영작, 플루트, 가야금, 서예, 동화논술, 택견, 미용, 제빵제과, 굴삭기·지게차, 논술, 학국화 색소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즐거운 휴무 토요일을 보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에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도서벽지형, 읍면형 방과후 학교의 모델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영광실업고등학교 건설기계장비 자격증반(성인 45명 자격증 획득)등이 주목받으며 전남방과후 학교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학생 수 190명의 전형적인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인 나주 봉황초등학교는 7개의 필수 프로그램과 8개의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내 각 지역 초등학교에 모범사례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2년 동안 방과후 학교를 운영,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에도 80억원을 들여 순수 도시인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모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농 교육격차 해소

정균태 초등교육 과장은 "2008년 이후 방과후 학교 사업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학교 연계와 지역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캠퍼스 소식

조선대 이사 9명·임기 3년으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사 수는 9명으로, 임기는 3년으로 확정됐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22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 정상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명의 이사 중 3명은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추천받은 '개방형 인사'가 개방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총동창회 파송 이사 1명과 조선대 총장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4명은 공모·추천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최근 이사후보자 공모 및 추천을 마감한 결과 학계 11명, 기업가 4명, 지역명망가 11명, 의료계 5명, 여성계 4명, 법조계 5명, 기타분야 18명 58명이 접수됐다. 이들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심사와 학내외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이사선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차기정부 정책과제' 학술대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호남지회(지회장 이창헌·조선대)와 시민정치학회(회장 박흥순·선문대)가 공동 주최하는 2007 추계학술대회가 23~24일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송원리조트에서 열린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의 대내외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정치와 국제관계로 나눠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국내정치 분과에서는 정주신(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원의 '차기정부의 국내정치개혁', 이동선(여주대) 교수의 '지방자치제도의 쟁점과 발전방향', 조희원(경희대) 교수의 '한국정치에서의 여성과 정치' 논문 발표에 이어 김경수(국가안보전략연구소)·김태수(그리스도신학대)·송경재(경희대)·신수식(금강대)·임성호(경희대)·최용섭(광주보건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국제관계 분과에서는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원의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이원봉(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차기정부 하에서의 한중 관계', 노찬백(광주보건대) 교수의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문의 062-230-6731.

일제강점기 무장항일투쟁 조명

광주대 호남전통문화연구소(소장 이희재 외국어학부 교수)가 일제의 정미7조약 강제 체결 및 대한제국 군대해산(1907년)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광주·전남지역 무장항일투쟁을 재조명한다.

광주대 호남전통문화연구소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 제1세미나실에서 '정미조약·군대해산 100주년 학술회의'를 갖는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홍영기(순천대) 교수가 '한말 군대해산 이후 호남의병의 활동'을, 윤선자(전남대) 교수가 '광주·전남 출신 광복군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인 김배길(72·무안 출생)씨가 참석, 항일무장투쟁의 생생한 역사를 증언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